# AbstractSummary

짧은 장마와 긴 폭염으로 말벌 활동이 급증해 8~9월 쏘임사고 위험이 커졌고, 이에 따라 119의 벌집 제거 출동이 크게 늘었다. 최근 한 달 출동 건수는 4만4천 건으로 전년 대비 57% 증가했다. 소방대원들은 대피 유도 후 보호장비를 갖추고 벌집을 제거하며, 당국은 주변 벌집을 수시로 확인해 신고하고 말벌이 공격하면 즉시 약 20m 이상 떨어져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.

# KeyPoints

- 짧은 장마와 긴 폭염으로 말벌 활동이 급증, 119 출동 증가  
- 건물 처마·사무실 창가 등 생활공간 인근에 대형 벌집 다수 발견  
- 소방대원, 보호복 착용 후 스프레이로 분사·벌집 제거 작업 수행  
- 말벌은 어두운 색을 공격하는 경향 → 소방대원은 하얀 보호복과 빈틈없는 밴딩으로 대응  
- 하루 많게는 15건까지 출동 사례 보고  
- 말벌 활동과 벌 쏘임 사고는 8~9월에 최다  
- 지난달 벌집 제거 출동 4만4천 건, 전년 대비 57% 증가  
- 원인: 짧은 장마·긴 폭염으로 말벌에 유리한 환경 형성  
- 안전수칙: 말벌 잦은 구역은 주변 벌집 여부 확인 후 신고, 공격 시 현장에서 약 20m 이상 신속 이탈

# ActionItems

행동 항목 요약  
  
소방당국/119 대원  
- 말벌 신고 접수 시 출동해 스프레이 살포 후 벌집 제거 수행  
- 제거 작업 전 주변 인원 대피 조치  
- 하얀색 말벌 보호복 착용 및 틈새를 밴드/테이프로 밀봉해 안전 확보  
  
시민/사업장(일반 대중)  
- 말벌이 자주 보일 때 주변(처마, 창문 위 등)의 벌집 여부를 수시로 확인  
- 벌집 발견 또는 말벌 출몰 시 119에 즉시 신고  
- 말벌이 공격해 올 경우 현장에서 약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기

# Sentiment

감정 분류: 부정적  
  
간략한 설명:  
- 전반적 톤이 위험·경계·우려를 강조하는 보도형이며, 말벌 극성·출동 증가·쏘임사고 위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.  
- ‘극성’, ‘신고’, ‘제거작업’, ‘대피’, ‘공격’, ‘쏘임사고’, ‘늘었습니다’ 등 부정적·위험 관련 어휘가 다수 사용됩니다.  
- 문체는 사실 전달 위주로 중립적이지만, 맥락상 재난/안전 이슈를 다뤄 전반적 정서가 부정적(우려·경계)으로 기울어 있습니다.